

#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210)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44)

세월의 풍화 겪는 신선들의 산

입력 : 2004. 08.27. 00:00:00



▲한라산 정상 서북벽. 이곳은 과거 등반객들의 과다이용과 풍화작용으로 훼손이 가중됐다.

○... 한라산은 제주섬의 한복판에 있다. 그 정상에 백록담이 있다. 백록담은 화산폭발로 형성된 산정호수다. 한라산의 자락은 오름과 오름으로 이어지며 중산간을 지나 해안에 닿는다. 이렇듯 3백60여개의 오름은 점과 점으로 제주섬을 둘러싸고 있다. 동쪽 우도에서 서쪽 차귀도에 이르는 제주섬의 최장축 '한라대맥' 탐사는 이제 한라산 정상에 이르렀다. 지난해 9월말 우도에서 출발한 대맥탐사가 11개월이 지나는 동안 절반을 넘어온 것이다....○

## △한라산 정상, 백록담 (上)

정상에 오른 날은 광복절인 8월 15일이었다. 뒷세오름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새벽 5시가 채 안된 시각에 깨어 컵라면과 죽으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는 6시쯤 정상 서북벽으로 향했다. 장구목을 마주하고 있는 서북벽은 과밀등산과 풍화작용 등으로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자연휴식년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 5월1일. 자연휴식년제는 국립공원내 등산로 중 해발 1700m 뒷세오름대피소에서 서북벽 정상일대까지 2km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휴식년제는 과도한 이용압력으로 훼손 또는 훼손우려가 있거나 자연생태계 보전상 출입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로써,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휴식기를 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후 출입제한구역을 확대 또는 조정하면서 그동안 12회에 걸쳐 재지정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4년 7월 1일부터 돈내코등산로 전 구간, 정상순환로, 남벽순환로 등 한라산 정상 일대의 대부분 등산로가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통제되고 있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내 자연휴식년제 구간은 뒷세오름대피소에서 서북벽 정상에 이르는 서북벽등산로 1.3km를 포함하여 총 4개의 구간에 14.8km가 지정되어 있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내 등산로 42.2km의 35.1%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4개 구간의 자연휴식년제 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로 돼 있으나 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

정상에 이르면 오전 7시쯤. 남벽 너머로 광활한 고산 초원 선작지왓과 서귀포까지도 지척이다. 서북벽 옛 등산로변 계곡(무수천 발원지)에는 훼손지 복구를 위해 헬기가 수시로 흙마대를 실어나른다. 장구목 너머에 있는 민오름(민대가리) 능선에도 복구의 흔적이 뚜렷하다. 이런 광경은 이내 구름속에 묻혀버렸다. 한라산 정상과 백록담은 아무리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바람이 구름을 몰고온다. 백록담은 흰사슴을 탄 신선이 내려와서 물을 마셨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경망스럽게 하면 그 신선들은 갑자기 안개와 비바람을 불러온다고 선인들은 믿어왔던 것이다.

옛부터 속세의 범인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 하여 영주산이란 별칭도 얻었다. 제주인들이 바로 이곳에서 오랜 옛날부터 산신제를 지내며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해 온 것도 신령스런 산에 대한 외경심 때문이었다. 산신제는 후에 지금의 5·16도로변의 산천단으로 옮겨 지냈다.

1974년 제주도가 실시한 '한라산 천연보호지구 자원조사보고서'에는 한라산에서의 산신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고려때부터 제민가호(濟民加護)를 위한 국제격(國祭格)인 산신제를 백록담에서 음력 10월에 기제를 하다가 동사자가 생기는 일이 있어 제단을 산천단으로 옮기게 되었다.' 한라산에는 옛부터 우마 방목이 성행했었다. 여름철이면 백록담에도 방목하는 소를 목격할 수가 있었다. 제주도 보고서에 따르면 1954년까지만 해도 한라산에 야우마(野牛馬)가 살고 있었고 제1차 대전 때만 해도 야우마의 피혁을 사용했다는 말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겨울이 되면 백록담에는 며칠을 두고 눈이 쌓인다. 초봄이 되어 해안가에는 봄이 완연해도 이곳에는 잔설이 남아 있는데 이 경치를 녹담만설(鹿潭晩雪)이라 하여 영주십경의 하나로 칭송해 왔다.

백록담 주변에는 1백60여종의 식물이 자란다. 유독 한라산에만 자라는 특산식물도 많이 있다. 이름앞에는 '제주', '한라'라는 접두어를 달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한라솜다리, 한라개승마, 한라장구채, 제주황기 등이 그 대표적이다. 한라산연구소 고정균박사는 "백록담 분화구내는 비교적 한정된 면적에 1백67분류군의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는데 이중 27분류군이 특산식물이며 37분류군이 희귀식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록담 일대의 자생식물 중 85.6%가 관상용이나 식용 등의 자원적 가치가 높은 유용식물로 조사돼 자원화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숙제로 남아 있다. 정상 외륜 바위벽에는 돌매화라는 희귀한 나무가 자란다. 키가 고작 2cm에 불과한 이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나무로 알려져 있다.

/특별취재팀

## [전문가 리포트]한라산 아고산대 식생의 축소판

백록담 분화구는 21만여㎡의 비교적 한정된 지역이지만 전체적인 식물분포양상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분화구내 사면별 바람, 일사, 적설 등 기후조건과 토양 등 식물생육 환경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군락은 돌매화나무-한라돌창포 군락과 김의털-한라사초 군락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김의털-한라사초 군락은 다시 전형군락과 털진달래-시로미 아(亞)군락으로 구분되며, 털진달래-시로미 아군락은 다시 구상나무-좁고채목 변(變)군락으로 구분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식생구조를 갖고 있다.

이 중 돌매화나무-한라돌창포 군락은 백록담일대 암벽 일부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암극식생인 돌매화나무가 우점하고 한라돌창포 등이 자란다. 김의털-한라사초 군락은 백록담내의 기저부와 사면 등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지만 입지에 따라서 털진달래-시로미 아군락으로 구분된다. 털진달래-시로미 아군락은 백록담의 남서사면과 북동사면에 주로 분포하며, 특히 전석지(轉石地)를 이루는 남서사면에 털진달래가 높은 우점도를 나타낸다. 구상나무-좁고채목 변군락은 북동사면에 주로 분포하며 교목성 인자들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산개버찌나무, 병꽃나무, 홍괴불나무 등이 혼효되어 있으며 하층식생으로는 다람쥐꼬리, 개족도리 등이 자란다.

또한 백록담일대에는 멸종위기에 있는 한라솜다리 등 27종의 특산식물과 들쭉나무 등 37종의 희귀식물을 포함하여 167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 분포하는 상당수의 희귀, 특산식물은 개체수나 분포면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호뿐만 아니라 보전전략이 요구되는 식물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백록담일대는 제주조릿대 군락을 제외하고 한라산 아고산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식생구조를 지녔으며 특이한 식물 분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 다양성이나 생태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고 식물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고정균 탐사위원( 한라산연구소/ 식물생태생리 )>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